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학기	2026년 1학기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학 번	2023-16145	이 름	최윤서
소 속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처 주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국제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8월 11일
작 성 자	최윤서

I. 교환 파견 동기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해외에서 살아보는 것은 막대한 로망이자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졸업이 다가오면서 그동안의 학부 생활에서 글로벌한 경험이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교환학생을 무조건 경험해 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낯선 환경 속에서 홀로 정착해 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히고 싶었습니다. 특히 건축공학 전공자로서, 유럽의 다양한 건축물과 구조를 직접 보고 느끼며 학업적 영감을 얻고 싶다는 목표도 컸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제가 파견된 뮌헨공과대학교(TUM)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뮌헨에 위치한 명문 공대로,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교입니다. 평소 관심 있던 구조역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에 완벽한 연구 환경을 갖춘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뮌헨은 독일 내에서도 치안이 매우 좋기로 유명하여 밤에도 도심과 대중교통을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당장 계획을 세워 인접 국가로 여행을 다니기에 최적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뮌헨은 대도시이지만 곳곳에 조경이나 자연환경이 잘 꾸러져있어서 평화로운 느낌을 자랑합니다. 6월 이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뮌헨 도심에 있는 영국정원이나 이자르 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이 뮌헨 살이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독일의 날씨가 악명이 높긴하지만, 다른 도시들에 비해 남부라서 따뜻하고 쾌적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독일

비자 신청은 주한독일대사관 해외포털에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기 명단 등록부터 예비 검토, 인터뷰, 수령까지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입학허가서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빠르게 12월 3일에 신청을 하였고, 1월 26일에 면접, 최종적으로 2월 3일에 발급받았습니다. 저보다 일주일 늦게 신청한 친구들은 비자를 2월 말에 받았으므로 TUM 입학허가서가 나오자마자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자 발급 및 생활비 증빙을 위해 슈페어콘토(동결계좌)와 공보험(TK 등) 가입이 필수적인데, 엑스파트리오(Expatrio)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2. 숙소 및 지불 비용

교환학생의 경우 이메일로 기숙사 지원 안내를 받게 되며, 우선 배정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기숙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및 거주지: 뮌헨은 서울대학교와 달리 기숙사가 시내에 여러 곳으로 퍼져있습니다. 저는 U6 Haderner Stern 근처의 Stiftsbogen이라는 곳에 배정받았고, 공용 주방 및 화장실, 개인 방이 주어지는 7인 플랫 형태였습니다. 월세는 370유로였으며, 공용공간을 청소해 주는 분이 계셔서 편했습니다. 또한 기숙사 단체 채팅방의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어있어 여기서 많은 중고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귀국 전에 팔았습니다.
- 기타 비용: 학기 시작 전에 Semester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발급을 위해 TK 공보험 등 독일 의료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뮌헨공대는 수강신청 제도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수강신청과 시험 신청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만 듣고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학기 말까지 수강 취소가 가능하므로 초반에 관심 있는 강의를 폭넓게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수강 과목

- Artificial Intelligence in Engineering
-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mputational Mechanics
- Isogeometric Structural Analysis and Design

TUM의 학사수업은 대부분 독일어라, 영어로 진행하는 석사 과목들을 수강하였습니다. 위 과목들을 수강하며 유한요소법 모델링과 AI를 구조 공학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etl에 해당하는 moodle이라는 사이트에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는 수업 자료만 잘 숙지하면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3. 연구실 컨택 및 연구 참여 경험

파견을 앞둔 지난 12월, 평소 깊게 관심 있던 구조 동역학과 인공지능 융합 분야를 연구하는 뮌헨공대 내 연구실에 미리 연락을 취해 학기 중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수강과 연구를 병행하는 과정이 바쁘게 흘러가기도 했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해외 우수 대학의

연구실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5월에 열린 GNI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BIM과 구조 공학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접하며 학술적인 시야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현지 연구진들과 소통하며 학업적 호기심을 넓히고 글로벌 연구 환경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매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V. 생활

1. 마트 물가 및 식생활

뮌헨의 외식비는 독일 내에서도 비싼 편이지만, 마트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저렴합니다. Lidl, Aldi, Edeka 등의 마트에서 고기와 과일, 빵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면 생활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챙겨오면 좋은 물품으로는 현지 아시안 마트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코인 욕수나 블록 국, 그리고 종합감기약 등을 추천합니다.

2. 교통 및 여가 생활

뮌헨의 대중교통은 매우 잘 발달해 있으며, 도이칠란드 티켓을 이용하면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교도시들은 RE나 RB를 타고 도이칠란드 티켓으로 당일치기를 많이 갔습니다. 특히 뮌헨은 알프스와 가까이 있어 도이칠란드 티켓으로 갈 수 있는 eibsee와 같은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고, 알프스 근처 하이킹할 수 있는 곳들이 잘 되어있어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Probe Bahncard 25라는 3개월치 체험판 ICE 기차 25% 할인권을 구매하여 독일 내 도시들을 많이 여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기 초에 ESN 카드를 구매하시면 많은 학생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플릭스 버스 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가까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뮌헨공항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많이 있지만, 비싼 편이라 가까운 뉘른베르크 공항이나 메밍겐 공항으로 가서 저가항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언어교환 카페인 Language Café를 자주 갔고 ESN에서 주최하는 파티, 하이킹, 당일치기 여행 등의 행사에 참여하면 현지 및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 좋습니다.

3. 기타 유용한 정보

기숙사 입주 후 14일 내에 안멜둥(거주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한국에서 원하는 날짜의 6주전에 예약이 풀려서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을 하였지만, 보통 입독 후 아침에 취소표를 잡아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리 비대면으로 N26 계좌를 개설해갔고, 거의 모든 마트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닐 예정이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안정적이라고 하는 fraenk 유심을 사용하였고 추천드립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 온전히 홀로 지내보는 것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출국 전에는 설렘과 걱정이 공존했지만, 언어부터 행정, 생활 전반을 스스로 부딪히며 해결하다 보니 어느새 문제 해결 능력과 독립성이 크게 자랐음을 느낍니다. 일상 속 작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 혼자 해낸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타지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튼튼한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학생 때 누릴 수 있는 경험과 유럽 여행을 목적으로 떠나왔지만, 점차 낯선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온전히 혼자 해내며 더 넓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뮌헨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 그리고 현지에서 소중한 인연을 맺은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접한 것은 이번 교환학생의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입니다. 유럽 전역의 다양한 나라와 도시 여행은 낯선 도시와 건축물들을 직접 탐구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크게 넓혀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뮌헨과 뮌헨 근교에서 피크닉, 호수 수영, 맥주 들고 노을을 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해먹는 소박한 일상들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학기 중반 이후부터는 오히려 새로운 도시로 여행을 가기보다 뮌헨에서의 일상생활에 비중을 더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대한 자유 속에서, 거의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을 쓰며 스스로에 대해 깊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일기를 기록하며 제가 어떤 공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여유롭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며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했던 지난 5개월은, 앞으로의 삶에 든든한 양분이 될 평생 잊지 못할 학기입니다.

